

‘코로나 홍역’ 광주 경제계 “방역 강화하라”

기아차·금호타이어 등 거리두기 상향에 추가 발생 차단 총력 회식 금지·직원휴게실 폐쇄·열화상카메라...유통가도 ‘긴장’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사업장 문을 닫고 생산을 중단하는 등 ‘홍역’을 치렀던 광주지역 주요 기업들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 따라 추가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광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 한명만 나와도’ 사업장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산업계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또 지역 유통업계 역시 직원들 중 확진자가 나와 영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분위기다.

8일 방역당국과 광주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유통가로 번지면서 광주지역 3대 대형 매장이 잇따라 휴업에 들어갔다.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은 2층 골프의류 업체 매장 직원이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같은 층에 근무하는 신발매장 직원이 7일 밤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롯데아울렛은 직원 첫 확진이 확인된 날 매장을 조기 폐점하고 방역활동을 벌였지만 추가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이날 오후부터 매장 전체 휴업을 단행했다. 이미 자가격리 중인 직원 100여 명을 포함해 입점 점포 200여 개, 300여 명의 직원이 일제히 휴업에 들어가면서 매출 손실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이마트 광주점도 지난 달 28일 2명에 이어 30일 직원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당일 영업을 조기 종료했고, 광주신세계도 지난 달 말 확진자가 나오면서 2층 잡화매장 영업을 중단한 바 있다.

앞서 지역 주요 산업계도 코로나19 여파를 피해 가지 못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지난달 30일 직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당일 1·2공장과 버스공장의 주간조 조업이 중단됐고, 다음날인 이날 1

일 1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1공장 주간조 조업을 중단했다. 또 금호타이어 곡성공장과 직원과 협력사 직원 등 3명이 확진되면서 지난달 30일과 1일 가동을 중단했고, 2명의 확진자가 나온 삼성전자 광주사업장도 지난 2일까지 냉장고 라인 가동을 멈춰야 했다.

이처럼 확진자 발생으로 영업·생산에 타격을 입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함에 따라 광주 주요 기업들 역시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다.

우선 롯데아울렛이 선제적인 조치로 매장 전체 휴업을 단행한 것에 이어 이마트 광주점은 열화상 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각 유통매장들은 방역 횡수를 늘리고 직원 휴게실을 임시 폐쇄하는 등 추가 감염을 방어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도 생산현장과 사무실을 주 2회 방역을 시행함과 동시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모바일 문진을 통해 매일 출근 전 전날 위험지역 방문 여부와 발열 등 증상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특별 지침을 공고하고 공장 출입시 체온 측정 강화, 출입자 통제 강화, 회식 금지, 출장

지양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들은 사내식당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배식과정에서 일회용 비닐장갑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각자 비상상황실과 코로나TF팀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매일 코로나19 예방 안내와 모임 자제 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섣달 운에 들어가는 등 한차례 어려움을 겪었던 탓에 전 직원 모두가 방역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며 “지역 내 감염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 하루하루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웅·백희준 기자 pboxer@kwangju.co.kr



X-mas 분위기 물신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을 찾은 고객이 성탄 분위기를 자아내는 크리스마스 트리 등 장식 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지역 4곳을 포함한 롯데마트는 오는 16일까지 크리스마스 소품을 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 5000원 상당 롯데상품권을 증정한다. <롯데쇼핑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00.93 (-44.51)
↓ 코스닥	906.84 (-20.04)
↓ 금리(국고채 3년)	0.959 (-0.002)
↑ 환율(USD)	1085.40 (+3.30)

고추값 상승 ‘맵다’

건고추 100g 1만8000원 지난해보다 80% ‘경증’

김장수요가 늘면서 이달 초 돼지고기 값이 지난해보다 12% 가량 올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는 7일 기준 광주 양동시장 농수축산물 소매가격을 조사한 소식지 ‘얼마오 2021호’를 8일 발행했다.

자료에 따르면 돼지고기(삼겹살) 100g 가격은 1990원으로, 1년 전(1780원)보다 11.8% 상승했다. 2주 전과 비교하면 1.5%(30원) 올랐다.

주요 농산물 가운데 가격이 크게 오른 품목은 건고추와 양파, 대파, 굴 등이었다.

작황이 부진한 건고추는 100g 가격이 1만 8000원으로, 1년 전보다 80%(8000원) 급등했다.

양파 1kg은 지난해보다 66.7% 상승한 2500원에 팔렸고, 대파 1kg은 65.0% 오른 3300원을 나타냈다.

배추와 무는 김장철 속에도 작황이 좋고 출하지역이 늘면서 가격 안정세를 지속했지만, 굴 가격은 지난해보다 25.9% 상승했다.

굴 1kg 가격은 1만8000원으로, 1년 전(1만 4300원)보다 25.9% 오르고 2주 전(1만7000원)보다 5.9% 상승했다. /백희준 기자 bhj@

효성ITX-SAP 업무 협약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구축

효성ITX는 8일 ‘SAP_코리아’와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은 제조·생산·판매 등 전 과정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협약으로 효성ITX가 2018년 자체 개발해 효성그룹의 국내외 사업장에 도입한 생산관리 솔루션 ‘XTRM FACTORY’(익스트림팩토리)에 SAP의 고객관계관리 솔루션과 SAP자회사 켈트릭스의 경험관리 솔루션을 추가해 미래에측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SAP의 솔루션들을 도입하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고객을 세부적으로 분류해 구매패턴을 분석할 수 있어 고객의 선호도나 취향을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외롭고...가난하고...전남 기초생활수급자 70% ‘1인 가구’

3명 중 1명 노인 세대...독거노인 10만 돌파

전남 1인가구 절반은 60세 이상이고, 광주 1인 가구 20%는 20대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남 독거노인 가구는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돌파했다.

이 같은 내용은 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에 담겼다.

지난해 말 기준 1인 가구는 광주 18만2000명·전남 23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광주 31.1%·전남 32.1%에 달하며,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30.2%)을 웃돌았다.

광주 1인 가구 비율은 지난 2018년부터 30%선을 넘었고, 5년 전 30%를 넘긴 전남도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남 1인가구의 51.7%는 60세

이상이고, 광주 1인가구의 20.4%는 20대였다.

이들 1인가구 소득 수준은 크게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가운데 1인 가구 비중은 광주 62.0%·전남 70.4%에 달했다.

광주 수급 대상 4만7619가구 가운데 2만9546가구가 1인 가구였고, 전남에서 수급받는 5만9208가구 중 4만1704가구가 혼자 살고 있었다. 특히 전남 기초수급 대상 3명 중 1명 꼴은 노인세대(32.7%·1만9339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5세 이상 1인 가구는 광주 3만8907가구·전남 10만7699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에 대한 비율은 각각 6.6%, 13.6%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일반 7가구 중 1가구 꼴로는 독거노인이라는 뜻

이다.

전남 독거노인 가구 비율은 지난 2000년 9.4%에서 지난해 13.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비율은 지난 20년 동안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13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부모 생활비를 부모 스스로 해결한다고 답한 비율은 전남이 61.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남지역 장년층 자립도가 낮다는 뜻으로, 평균 응답률은 69.5%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부모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한다는 응답률은 8년 연속 전국 최저였다. 1인가구 고용률은 광주의 경우 지난해 59.3%로, 전년(60.7%)보다 1.4%포인트 감소했다. 농어업 종사자가 많은 전남 1인가구 고용률은 1.9%포인트 증가한 62.2%로 나타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하수 관정보호함 무상 설치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최근 전남 13개 농가에 지하수 관정보호함을 무상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무상 설치 대상은 광양시, 나주시, 무안군, 영광군, 해남군이 공동 추진했다.

관정보호함은 농촌 지하수 관정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됐다.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는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사업과 ▲방치공 폐공처리 ▲지역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노후 저수지 안전점검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969년부터 지하수 개발 공사를 펼치고 있으며 농촌지역 지하수 공급과 보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